

2001년도

규제개혁 백서

규제 개혁 위원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위원회 안문석 공동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02. 2. 26)



안문석 공동위원장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02. 4. 12)



김일섭 경제1분과위원장이 경제1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02. 4. 10)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들 (2002. 4. 10)



이계민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이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02. 4. 11)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행정사회분과위원들 (2002. 4. 11)



경제2분과위원회 성낙오 위원이 경제2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02. 4. 26)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경제2분과위원회 위원들 (2002. 4. 26)

발 간 사



WTO 도하개발 아젠다 출범과 더불어 세계시장의 통합이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제 경쟁력이 없는 기업과 국가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규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5단체의 건의과제를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민관 합동으로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규제개혁 방안에 반영함으로써 규제개혁의 과정이 보다 현장지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단시일 내에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룩한 제도적 성과에 더하여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규제개혁 추진전략을 새로이 준비하고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да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개별 경제 주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겠으며, 국내외 기업인들 사이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라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2002년에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관행과 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규제개혁이 우리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국 무 총 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이 한 동

규제개혁 백서 발간에 부쳐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우리경제의 걸림돌이 되었던 기존 규제의 절반 이상을 폐지 내지 개혁하였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양산을 막아 왔습니다. 2001년 이전까지의 규제혁파 작업은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 과정에서 시장기능의 활성화라는 원칙하에 하향식 규제개혁이 대중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2001년도 규제개혁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현장성을 강화한 상향식 규제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규제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끝으로 백서 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계민 행정사회분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지난 1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셨고 이 백서 발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무총리 규제개혁조정관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규 제 개 혁 위 원 회
공 동 위 원 장

